

2012년 세계농업 전망*

한석호, 승준호, 조우림

1. 들어가면서

라보뱅크(Rabobank)는 2012년 국제농산물가격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선적으로 수급조건이 개선되었고,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던 2011년보다는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재고량이 역사상 가장 적다는 점과 비상업적인 선물투기 등으로 2012년 국제농산물가격은 라보뱅크 예측치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라보뱅크는 중장기적으로 국제 농산물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2011년 중반 이후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였다는 점과 이미 역사적으로 높게 형성된 2011년 가격수준이 올해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세계경기침체가 더 이상 지속 되지 않는다면 2012년 국제농산물가격은 2008/09년 가격수준까지 급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높게 형성된 가격수준은 국제소비증가와 현재 낮아진 재고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제 농산물 생산량 증가를 유발시킬 것이다.

국제 농산물수요는 신흥개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증가로 2012년에도 높게 유

* 본 내용은 네덜란드의 종합금융기업인 라보뱅크(Rabobank)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Outlook 2012-down, but not out)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 승준호 연구원, 조우림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shohan@krei.re.kr, 02-3299-4279, jhseung@krei.re.kr, 02-3299-4267, urimcho@krei.re.kr, 02-3299-4353)

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생산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라보뱅크 분석에 따르면 생산측면에 있어서 기후변화와 각국의 농업정책에 따른 생산위험요소가 존재할 것이며 2012년에도 이러한 생산위험요소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생산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은 가격 및 가격변동성이 기존예측과 상이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표 1 2012년 국제농산물가격 전망

품목	단위	2011년 1/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현물시장	2012년 1/4분기	2012년 2/4분기	2012년 3/4분기	2012년 4/4분기
밀(CBOT)	USc/bu	788	748	688	610	579	595	630	615	595
밀(Matif)	EUR/tonne	253	234	199	170	179	162	175	172	166
옥수수	USc/bu	674	732	696	620	585	610	645	630	610
대두	USc/bu	1,381	1,363	1,358	1,165	1,122	1,178	1,226	1,260	1,251
콩기름	USc/lb	57.0	57.3	55.8	49.4	49.3	48.7	50.2	49.1	47.5
대두박	USD/ton	260	240	230	300	282	310	290	330	335
팜오일	MYR/tonne	3,681	3,365	3,100	3,000	3,171	2,800	2,900	3,000	3,100
설탕	USc/lb	30.6	24.4	28.7	24.5	23.1	23.5	23.0	22.0	22.0
커피	USc/lb	258	271	257	230	232	220	200	180	170
코코아	USD/tonne	3,322	3,042	2,969	2,400	2,246	2,350	2,450	2,350	2,300
면화	USc/lb	182	168	108	95	91	85	85	80	80

자료: Bloomberg, Rabobank, 2011.

예측에 포함된 모든 농산물가격은 평균적으로 지난해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옥수수, 밀, 콩, 설탕, 코코아 품목은 수급구조상 현재 낮은 현물시장 가격수준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나, 유럽재정위기가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화와 야자유는 단기적으로 현재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은 2012년 생우가격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돼지고기 가격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보뱅크의 2012년 농산물가격 예측은 다음 4가지의 중요한 가정에 근거하였다. 농업에 있어서 내재적인 기후의 불확실성을 제외하고 4가지 변수가 향후 12개월 동안 농산물시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세계경기 침체
2. 선물투기와 달러화 가치
3. 각국의 정책변수
4. 생산의 제약

세계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기본으로 가정하고 라보뱅크는 국제 농산물 가격과 수급예측 베이스라인을 제시하였고 세계 거시경제전망치 가정을 설정하여 시나리오도 별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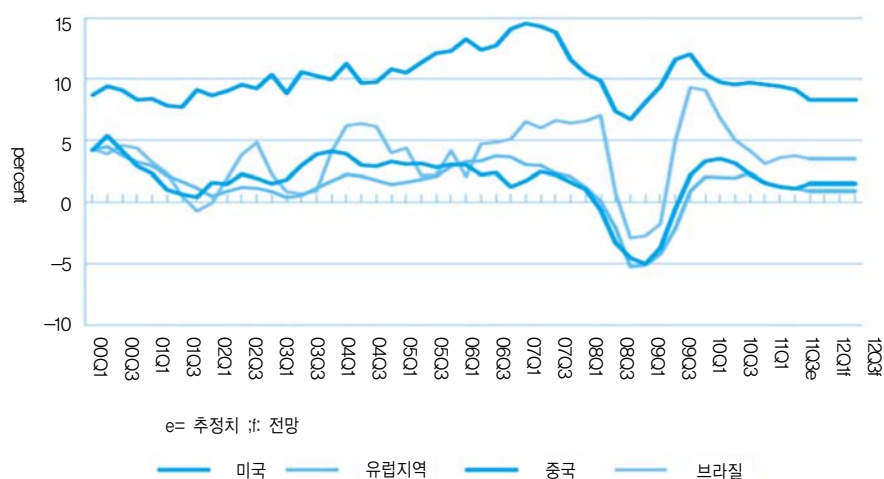
2. 2012년 농업 시장 키워드

2.1. 경기 침체

2012년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가 농산물 가격에는 매우 적은 영향만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신흥 시장의 수요가 선진국의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상쇄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기나 사재기의 가능성이 있고 세계 경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축산물이나 면 등의 제품은 경기 침체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옥수수나 커피처럼 안정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하는 상품들은 경제 침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보뱅크는 2012년 경제가 EU와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거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신흥 시장 경제가 회복은 되고 있으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림 1). 그러나 산업과 정부 부문 모두 경기 침체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후퇴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1 주요 국가의 분기별 GDP 성장률 추정 및 예측(2000 1/4분기 ~ 2012년 3/4분기)



자료: IMF, Rabobank, 2011.

2.1.1. 경기 침체와 농산물 가격

2012년 농산물 가격은 공급이 증가하여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요와 소량의 재고로 인해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많은 농산품의 가격이 공급

과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측면이 여전히 대부분 특히 커피와 옥수수 시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면화와 축산물 시장은 경제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미국의 육류와 어류 소비가 2004년 정점을 찍은 뒤 식습관 변화와 소득 감소로 인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반대로 신흥 시장에서는 미국 소비 감소를 상쇄할 만큼 육류와 어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뉴욕 선물시장의 면화 가격은 1970년 이후 최근까지 7번의 미국 내 경기 침체 기간 동안 하락하였다(그림 2). 면화 가격은 공급 증가와 수요 침체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침체가 하락폭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

그림 2 미국 내 7번의 경기 후퇴 기간 중 S&P GSCI 농산물 지수의 변화(1969년 12월~2009년)



자료: Bloomberg, Rabobank, NBER, 2011.

대부분의 국가는 2012년에 경제 침체를 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과 EU가 더블 덩(double-dip)에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농식품에 미칠 영향을 다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농산품에 일관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경기 침체는 선진국의 수요에는 매우 적은 영향을 미치고 경제 위축은 일반적으로 공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공급은 오히려 장기 가격과 기상에 영향을 받는다.

2.1.2. 위기의 미국과 EU 경계

미국의 2012년 GDP 성장률은 2011년보다 1.7% 감소하고 2010년보다 3.0% 감소한 1.5%로 예상되었다. EU의 2012년 GDP 성장률은 0.4%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EU가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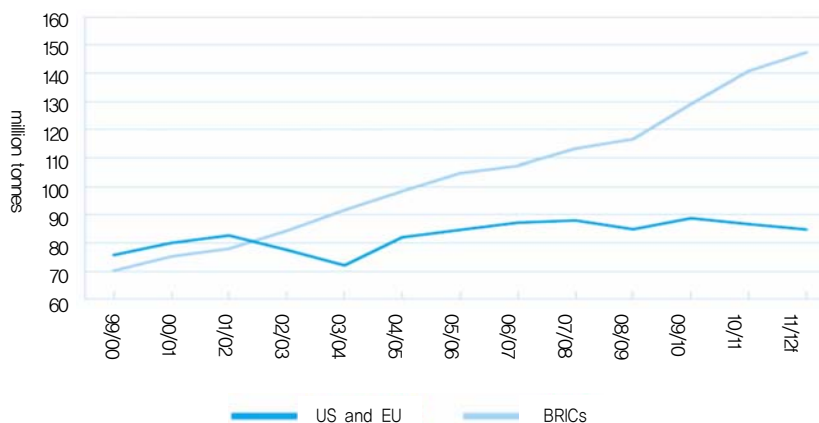
정 위기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을 가정한 결과이다.

EU와 미국의 더블 덩 침체에도 불구하고 농산품 수요의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가계의 여유 소득(discretionary incomes)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작고 대부분 농식품의 소비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과 같이 비교적 가격이 높은 상품이나 면화와 같이 소비 지향적인 상품은 경제 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2.1.3. 수요 성장을 견인하는 신흥 시장

신흥 시장의 2012년 평균 경제 성장률은 6.5%로 예상되었고, 이는 2011년 6.9%, 2010년 7.8%보다 약간 낮지만 2000년 ~ 2005년의 평균인 6.0% 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브라질의 경우 2012년 경제 성장률은 3.6%로 201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되었고, 농산품에 대한 세계 수요는 여전히 브라질 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 신흥 시장의 식습관 변화와 도시 인구 증가는 농식품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신흥 시장의 유지종자에 대한 수요는 1999년에 비해 110% 가량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선진국의 유지종자 수요는 12% 증가하였다(그림 3).

그림 3 EU, 미국 및 BRICs의 유지종자 소비(1999년 1월 ~ 2011년 12월)



자료: USDA, Rabobank, 2011.

2012년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는 대부분의 농산품 재고가 적은 편이고 인플레이션이 높지만 중국 정부가 국제 시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물량을 확보하거나 여차하면 국내 식품 가격 조절에도 관여할 것으로 보여 농산물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중국의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은 국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012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보뱅크는 2012년 중국 경제가 약간의 침체를 맞을 것으로 보았다. 중국 정부가 경제를 지원하고 높은 국내 가격을 완화시키며 사회적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기대보다 낮은 경제 성장에도 농산물 수급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2.1.4. 경제 전망

경제 침체 혹은 둔화가 2012년 농산물 시장을 위협하게 되긴 하겠지만, 신흥 시장의 농산품 수요 성장 회복이 경제 침체의 영향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고는 평균치보다 낮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확량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공급이 수요를 맞추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2012년 세계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의 증가가 가격을 하락시켜 수요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미국 달러와 투자자

2012년 미국 달러는 취약한 기반으로 인해 다른 통화에 비해 평가절하 될 것이며 이는 농업 시장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보뱅크도 2012년에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세계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이 예측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은 1년 후의 농산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정치적 마비와 EU 멤버간의 불화로 유로 가치가 하락할 경우 단기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이 반드시 예측한 바와 같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 수출 시장이 개선되기 때문에 옥수수, 밀, 콩, 돼지고기 등의 농산품은 유리해 질 것이다.

2008년과 2010년 미국이 소비 촉진을 위해 통화 공급을 늘리면서 최저 금리 기록을 경신하고 높은 실업률을 발생시켜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예측으로 향후 12개월 간 대부분의 통화 가치가 미국 달러 가치보다 높았다. 그러나 과대평가된 통화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2012년 미국 달러의 가치는 회복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금 상황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느슨한 통화 정책과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이 미국 경제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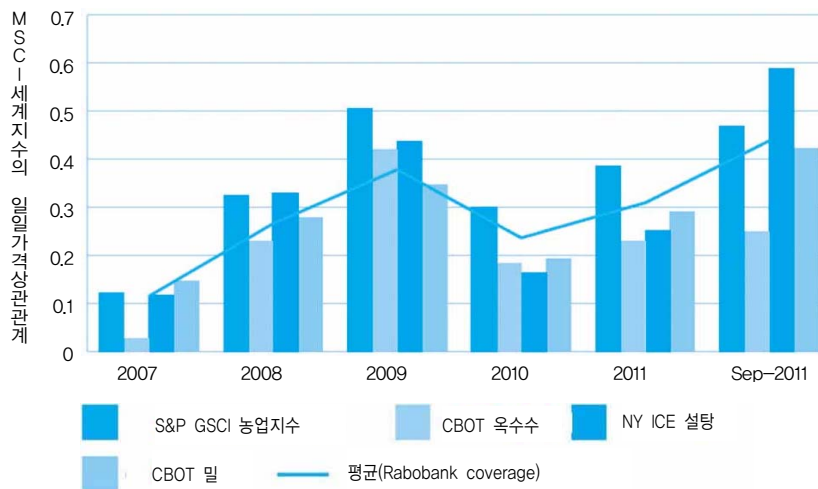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거시경제가 지속되면 2012년의 키워드는 위험 회피(risk

aversion)가 될 것이다. EU의 채무 위기로부터 시작된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난 12개월간 모든 시장에서 위험을 택하거나(risk-on) 회피하는(risk-off) 거래를 하도록 만들었다. 2012년의 도전 과제는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계속되는 위험 기피 현상일 것이다.

2011년 가을 EU 채무 위기가 발생하면서 농산물 지수와 주요 거시 지표가 가파르게 동반 상승하였다(그림 4). 이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대부분 자산끼리의 높은 상관관계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금의 흐름은 EU가 신용지수를 회복할 해결책을 찾는 등 2012년 거시 경제 환경에 따라 대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개월을 돌아보면 초반에는 세계 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산품에 추가적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었지만 현재에는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당시와 같은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그림 4 농산물 지수와 주요 거시 지표의 상관관계(2007년 1월 ~ 2011년 9월)



자료: Bloomberg, Rabobank, 2011.

2011/12년 중국으로의 옥수수 수출은 4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중국내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미국 달러가 중국 원화보다 가치가 하락할 경우 중국의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콩(대두박), 돼지고기, 소고기 등에도 해당될 것이다.

2.3. 정책의 위험성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신재생연료 보조금 정책이 변경되거나 철폐될 위

험이 있고 다른 채무가 많은 선진국들도 농업 보조금을 인하시키고자 하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높은 가격으로 생산자들이 생산을 증가시켜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옥수수과 코코아는 2012년 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변화가 국제 무역 균형에 큰 위협이 되면서 농산품에 대한 위협도 2012년에 증가할 것이다.

2012년 미국 대선은 향후 몇 년간 미국 농업 구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12년 농산물 가격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요인이나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미국의 옥수수 에탄올/바이오디젤 정책이다. 신재생연료 혼합의무 프로그램(Renewable Fuels Standard, RFS2)은 의무적으로 신재생연료 혼합사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수준을 넘는 생산량은 총 의무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2년의 의무할당량은 152억 갤런이다. 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관세는 현재 갤런당 0.54 USD인데 이것이 경제적이지 못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수입 관세는 에탄올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요 리스크 증가의 요인은 정권 교체와 최근 계속되는 미국의 지원 정책 철폐 가능성이다. 그러나 의회의 기득권층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RFS2 할당량 역시 2012년에 변경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RFS2가 폐지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정책적 변화가 2012년 옥수수 에탄올 생산에 미칠 영향 역시 적을 것이며, 향

그림 5 미국 에탄올 수익률 추정(2008년 1월 ~ 2012년 1월)



자료: Bloomberg, Rabobank, 2011.

후 수익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의 에탄올 증류 혹은 혼합 사업은 여전히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이다(그림 5).

OPEC은 2011년 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2년에 배럴당 100 USD 혹은 그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을 조정하여 적절한 이윤을 남기고자 계획하였다. 현 수준이 유지될 경우 옥수수 가격은 부셸당 6.80 USD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국의 기후 변화나 유통 제한, 사회적 불안정 등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불안정을 더욱 증대시킨다. 농산품목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에 전가되는 생산이 매우 적기 때문에 옥수수와 대두 시장에 전이될 정치적 위험은 커질 것으로 보았다.

3. 주요 품목별 전망*

최근 거시경제 변수들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주요 품목의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을 실시하였다.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한 세 가지 시나리오별 전망을 함으로써 전망결과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농산물 품목별 전망을 위해 거시경제 전망치를 적용하였다.

3.1.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 전망에서는 2012년 세계경제가 침체되지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을 주요 가정으로 적용하였다. 유럽과 미국의 더블 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산물 수요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 위기는 효율적인 정책대안과 시간상의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현재 상황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베이스라인에서는 유로존 위기와 관련한 정책 대안들이 2012년 1분기에 효력이 발생하고, 유로존 붕괴 가능성은 10~15% 정도이며, 투자자금 흐름의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2012년 미달러화 가치는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신흥시장의 농산물 수요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농산물 수요변화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품목인 밀, 옥수수, 대두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3.2. 경기회복 시나리오

경기회복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주요 가정으로 적용하였다. 이는 세계 경기 회복과 원자재 시장으로의 투자자금 이동, 유로존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높은 대안을 전제로 한다. 한편 선진국과 신흥시장 모두에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미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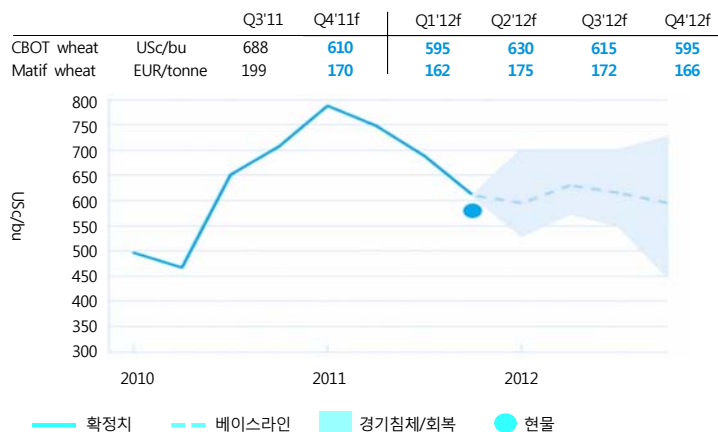
3.3 경기침체 시나리오

세계 경기 침체와 농산물 수요가 감소하는 시나리오로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어 유럽 주요 국가들로 위기상황이 확산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주요 농산물 소비와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가격 인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경기침체 시나리오에서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미 달러화 가치 상승을 가정하였다.

3.3.1. 밀

2012년 밀 가격은 2011년보다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사료 작물 수급이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 가격 상승요인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밀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2012년 밀 가격 전망



자료: Bloomberg, Rabobank,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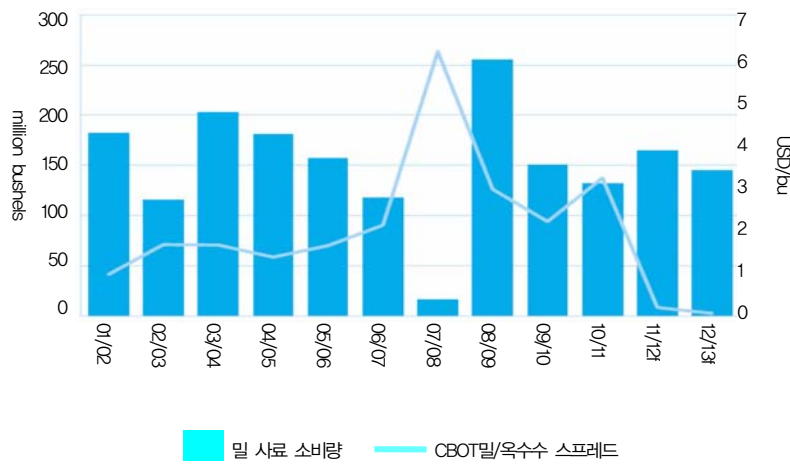
고품질·고단백 밀 공급량은 충분하지 않지만 세계 밀 총 공급량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밀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2/13년 겨울밀(winter wheat) 파종 여건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경쟁이 심화되어 세계 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밀 가격은 전년대비 1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흉작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밀 공급량 증가로 밀 가격 급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달러화 약세는 CBOT 밀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EU 지역의 수출경쟁 구도 약화는 파리금융선물거래소(MATIF) 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밀 수요가 비교적 비탄력적이므로 시나리오별 수요 전망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변동 요인이 증가하고, 2012/13년 밀 생산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전망결과에 리스크가 존재한다.

2011/12년 세계 밀 생산량은 6억 8,4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현시점에서 생산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지역은 호주와 아르헨티나 등의 남반구(Southern Hemisphere) 지역이다. 한편, 사료작물 공급량 부족으로 2011/12년 세계 밀 소비량은 전년대비 4% 증가한 6억 7,600만 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밀 재고량은 전년대비 2%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재고율(stock-to-use ratio)은 전년 수준인 30%로 예상된다. 이는 2007/08년 재고율 20%보다 높은 수준이나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밀 가격은 국제시장 변화보다 미국 내 시장 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11년 폭염으로 단수가 감소함에 따라 밀 수급에 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밀/옥수수 선물가격 스프레드는 사료용 밀 비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2011년 하반기 이래 적으로 밀에 대한 옥수수 가격의 프리미엄이 1995/96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였으며, 한 동안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USDA는 2011/12년 미국의 사료용 밀 소비량이 전년대비 22% 증가한 1억 6,000만 부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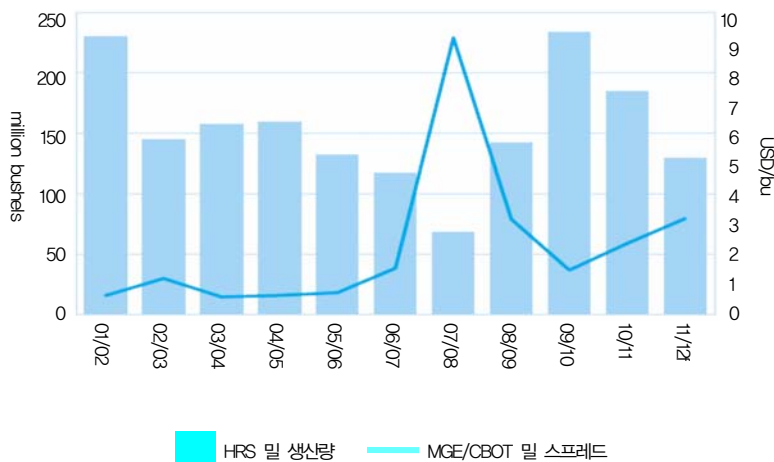
그림 7 미국의 사료용 밀 소비 및 밀/옥수수 스프레드



자료: USDA, Bloomberg, Rabobank, 2011.

세계 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품질·고단백 밀의 공급량은 넉넉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미국과 캐나다의 HRS(Hard Red Spring) 밀 주요 생산 지역 홍수에 따른 흉작은 공급량 감소와 고단백 밀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였다. 이는 미네아폴리스곡물거래소(MGEX)와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밀 스프레드 증가로 이어졌고 2012년 상반기까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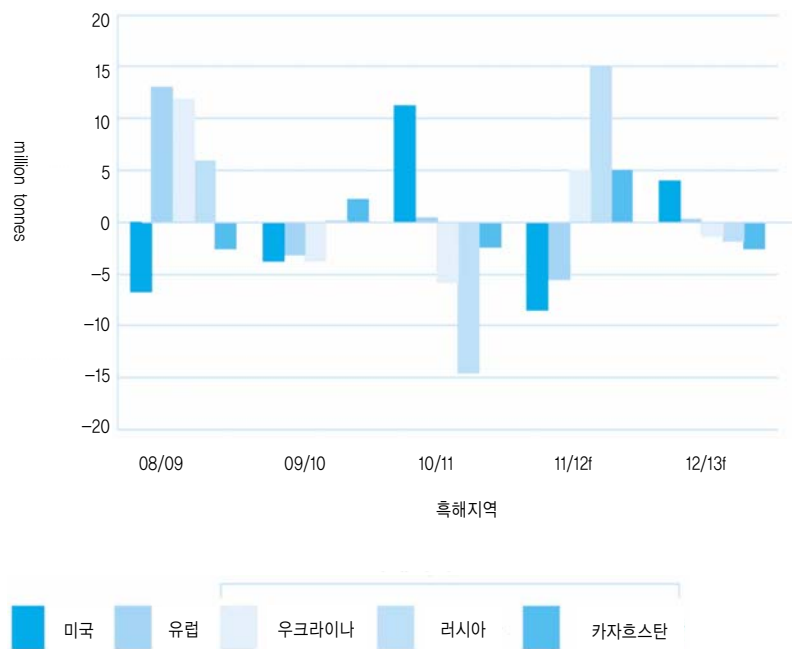
그림 8 HRS 밀 생산량 및 MGE/CBOT 밀 스프레드



자료: USDA, Bloomberg, Rabobank, 2011.

세계 밀 생산량 급증으로 수출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USDA는 미국의 밀 수출량이 전년대비 24% 감소하고, EU는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밀 수출 가능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특히 흑해(Black Sea) 지역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43% 증가하고, 수출 금지조치가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2011/12년 흑해(Black Sea) 지역의 수출량은 3,800만 톤으로 전 세계의 27%를 차지할 전망이다. 한편, 호주와 캐나다의 밀 생산량 증가로 수출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서부지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수출량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캐나다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1,800만 톤으로 예상된다.

그림 9 흑해지역, 미국, EU의 전년대비 수출량 증감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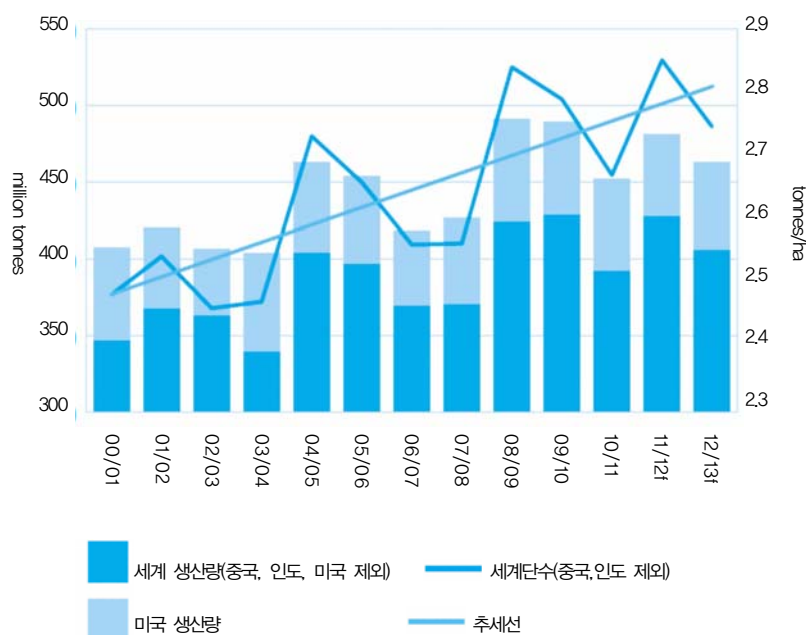
자료: USDA, Rabobank, 2011.

EU의 밀 가격은 2012년 초 유로화 약세로 상승 가능성이 미미하게 존재하나 흑해(Black Sea) 지역의 저가 밀 수출 경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흑해(Black Sea) 지역이 북아프리카 수출시장을 점유하면서 프랑스의 경우 2011/12년 들어 밀 수출량이 감소하였으며 연말까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밀 재고량은 전년대비

13% 증가하여 파리금융선물거래소(MATIF) 밀 가격은 톤당 125~195유로로 2011년 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13년 세계 밀 생산량은 전년 수준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2011/12년 가격 하락으로 밀 재배면적이 전년 수준을 유지 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타작물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과거 단수 추이를 적용할 경우 2012/13년 밀 생산량은 전년대비 3% 감소한 6억 6,2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속된 가뭄으로 미국 서부지역과 우크라이나의 겨울밀 파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2012/13년 밀 단수는 과거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반구(northern Hemisphere) 지역의 봄철 기상 및 파종여건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측면에서 심각한 충격이 없다면 2012/13년 밀 가격은 2010년, 2011년과 같은 높은 수준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세계 밀 생산량 및 단수 전망



자료: USDA, Rabobank, 2011.

3.3.2. 옥수수

2012년 CBOT 옥수수 가격은 전년대비 하락하지만 일시적으로 약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옥수수 가격은 2분기 부셸당 평균 6.45달러에서 2012년 4분기 부셸당 평균 6.1달러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하반기 가격하락은 2012/13년 미국의 옥수수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1/12년 미국의 옥수수 재고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향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2분기와 3분기 옥수수 가격 전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미국의 옥수수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시장여건에 따라 2012/13년 미국의 옥수수 재배면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옥수수 가격은 경제여건 보다 남아메리카의 기상여건과 2012년 미국의 생산량 전망에 의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가 변동에 따른 에탄올 생산량도 옥수수 수급 및 가격 변동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옥수수 가격 전망



자료: Bloomberg, Rabobank, 2011.

경기침체 시나리오에서는 개도국의 단백질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을 포함하였다. 경기침체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하락하고, 에탄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옥수수 가격은 부셸당 5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기회복 시나리오에서는 유가 상승 및 옥수수 수요 증가와 재고량 변화가 예상되며, 2012년 2분기 옥수수 가격이 부

셀당 7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USDA의 옥수수 기말재고량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높은 에탄올 마진에 따른 옥수수 소비 및 수출량 증가와 2011년 USDA 최종 수확량 보고서에서 단수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2011/12년 미국의 옥수수 소비량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128억 부셸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남아메리카의 옥수수 수출량을 USDA 전망치보다 낮게 전망함에 따라 남아메리카의 수출량 증가 가능성과 향후 라니냐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에탄올 연료용 옥수수 수요는 USDA 전망치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가 향후 옥수수 가격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시장에 있어서 투기자본은 특히 옥수수 시장의 향후 가격 전망을 위한 중요한 변수이다. 2012/13년 면적과 생육 여건 전망이 비교적 확실해질 때까지 옥수수 가격은 최저 6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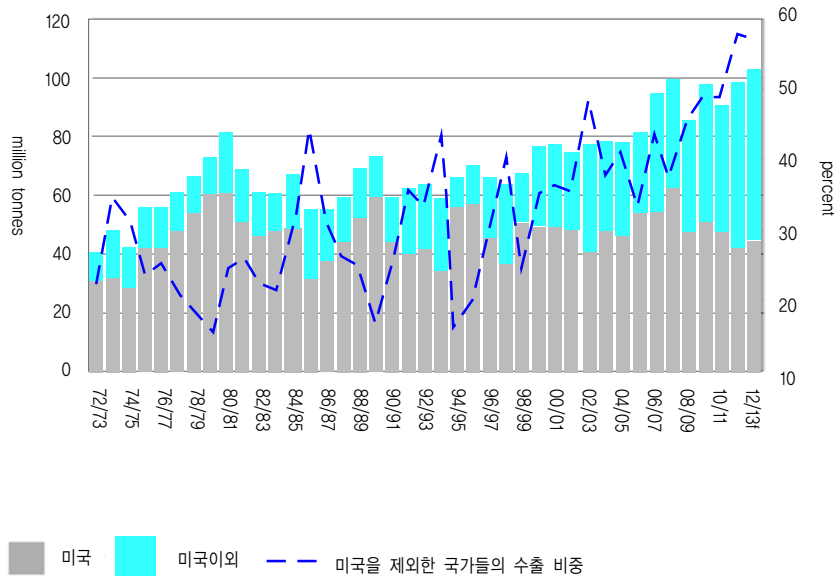
2011/12년 바이오 연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51억 부셸로 예상되며, 2012/13년에는 52억 부셸에 이를 전망이다. 유가 변동이 없을 경우 에탄올 생산량은 전망치에 가깝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스라인의 경우 중동지역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012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110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

2011/12년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미 달러화 약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16억 부셸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입국이 보다 저렴한 옥수수 생산 지역으로 수입 루트를 변경 할 경우 변동될 여지가 있다.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만 수입할 가능성이 있고 멕시코도 가뭄으로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2012년 1분기 미국의 수출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USDA는 현재 미국의 사료용 옥수수 수요 전망치 46억 부셸을 47억 부셸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USDA는 11월 WASDE 보고서에서 미국의 옥수수 수요량이 과소 추정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2012/13년 미국의 사료용 옥수수 수요량은 소 사육마리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감소한 45억 부셸로 전망된다.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소폭 감소하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의 생산량 증가로 2011/12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과거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여건의 불확실성 및 정치적 요인으로 미국을 제외한 2011/12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경우 라니냐 현상에 따른 영향으로 옥수수 단수 감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12 세계 옥수수 수출량 전망



자료: USDA, Rabobank, 2011.

2011/12년 남아메리카 지역의 옥수수 수출량은 2,7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수출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세계 옥수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망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USDA는 생산량이 급증한 2011/12년 우크라이나의 수출량이 1,2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1/12년 우크라이나의 수출량 전망치는 1,100만 톤 수준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침체 시나리오에서는 95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2/13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3.4% 증가한 8억 8,50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2/13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중국의 수입량 증가로 늘어날 전망이며 기말재고량은 1억 2,380만 톤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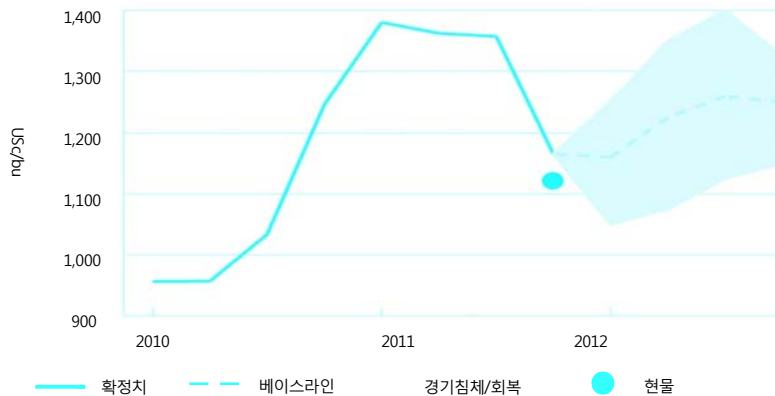
3.3.3. 대두

2012년 대두 가격은 2011년 대비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상승할 여지는 남아있다. 베이스라인의 경우 향후 대두 가격이 현 수준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2년 대두 가격의 주요 변수인 옥수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낙관적인 상황도 예상된다.

그림 13 대두 가격 전망

CBOT		Q3'11	Q4'11f	Q1'12f	Q2'12f	Q3'12f	Q4'12f
Soybeans	USc/bu	1,358	1,165	1,178	1,226	1,260	1,251
Soy oil	USc/lb	55.8	49.4	48.7	50.2	49.1	47.5
Soymeal	USc/ton	23.0	300	31.0	290	330	335



자료: Bloomberg, Rabobank, 2011.

2012/13년 미국 대두 재배면적의 상당 부분이 옥수수로 대체될 전망이다. 대두 최저 가격은 남아메리카의 생산 비용과 중국의 수입 수요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의 지위를 2년 연속으로 브라질에게 내어줄 것으로 전망되며, 남아메리카의 생산 여건에 따른 가격 변동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가격 하락에 대한 전망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의 대두 생산 감소로 매년 수입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2012/13년 미국의 대두 파종면적은 7,390만 에이커로 100만 에이커 이상이 옥수수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13년 대두 파종면적은 2007/08년 이래 최저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수 증가로 2012/13년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한 32억 부셀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두 수출량은 500만 톤 이내로 증가할 전망이나 늘어나는 중국의 대두 수입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양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계 대두 재고량이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아메리카의 대두 생산량이 최소한 200만 톤 이상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4 미국의 대두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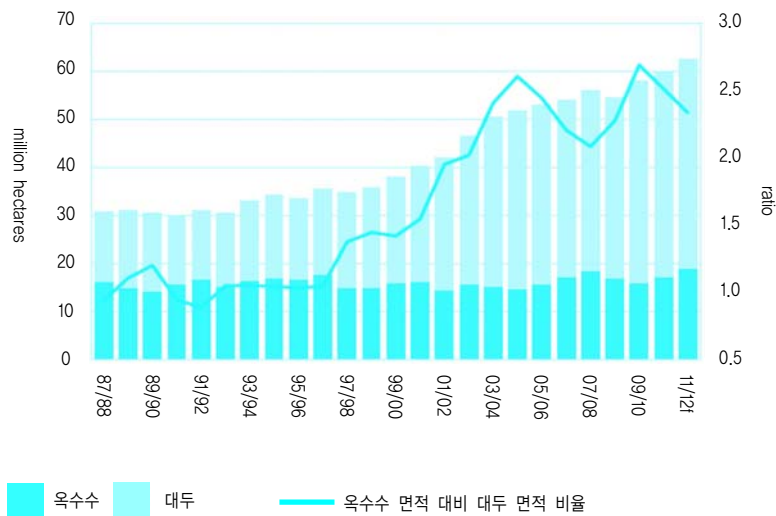
자료: USDA, Rabobank, 2011.

2012/13년 세계 대두 생산량 증가 가능성은 남아메리카의 생산 여건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아메리카 지역의 기상여건이 양호하고 브라질의 대두 파종면적이 증가하여 생산 증가 요인이 있으며 이는 향후 수출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1/12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은 총 1억 3,400만 톤으로 전망되며, 향후 세계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13년 미국의 대두 파종 장려를 위해서는 2012년 3분기 CBOT 대두 가격이 부셸 당 10달러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이 비용 면에서 볼 때 미국보다 효율적이나 최근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가(land value) 상승, 통화절상(currency appreciation), 생산비 상승은 브라질의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2012년 브라질 레알화 강세가 예상되어 투입재 구입에는 유리하나 수출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브라질 농가의 대두 재배의향을 늘리기 위해서는 CBOT 대두 가격 상승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바이오디젤 수요가 증가하고 신흥시장 국가들의 대두유 수요가 대두박 수요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 대두유와 대두박 수요는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대두유 가격은 2012년 경기 침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EU와

그림 15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대두 재배면적 및 비중



자료: USDA, Rabobank, 2011.

미국 시장에서의 대두유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시나리오에서 선진국 경제 성장이 신흥시장 국가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흥시장 국가에서 대두유 비중이 높아 대두유 가격은 비교적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가축 사육마리수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옥수수 주정박(DDGs) 증가로 미국의 대두박 수요는 5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DDGs는 대두박 사료 소비를 20~30%까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12년 에탄올 생산량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두박 수요는 지속적인 감소가 전망된다.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거나 세계 경기가 침체될 경우 이는 2012년 대두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7년 중국의 인플레이션으로 1인당 육류 소비량이 감소한 바 있다. 2011년에도 식품가격이 상승하였으나 200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주로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서 기인하며 2011년 돼지고기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이는 돼지 사육 마릿수 증가로 이어져 2012년 중국의 대두 수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1/12년 중국의 대두 생산이 감소하여 대두 수입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